

■ 최경주 크라이슬러챔피언십 우승

- 경기 내용

역전 불허... '탱크' 저력 과시

최경주는 3라운드에서 '황태자' 아니 엘스(남아공)와 브라이언 게이(미국), 폴 고이도스(미국)에 불과 1타차로 앞서는 불안한 선두였지만 2002년 9월 같은 코스에서 열린 크라이슬러챔피언십 전신인 탬파베이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경험을 살려 이날 우승 후보들을 압도해 나갔다.

최경주는 1번홀(파5)에서 3번 우드로 친 두 번째 샷을 홀 6m에 붙인 뒤 퍼트로 이글을 잡아내며 3타차 선두로 나서면서 기선을 제압했다. 이후 3번홀(파4) 보기, 4번홀(3) 버디, 5번홀(파5) 보기를 번갈아 하며 다소 주춤했던 최경주는 7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안정을 찾았다.

이 사이 경쟁 상대였던 엘스는 전반에만 더블보기를 1개, 보기 2개, 버디 1개로 3타를 잃어 우승권에

1번홀 이글... 초반부터 기선제압

투어 챔피언십 출전권도 획득

서 멀어졌고 고이도스도 전반에 버디 1개를 보기 1개로 맞바꿔 제자리 걸음을 했다.

후반 들어 최경주는 10번홀(파4)에서 버디를 보낸 뒤 파 행진을 하며 3타차 선두를 지키다 18번홀(파4)에서 3.5m짜리 버디 버트를 성공시켜 여유있게 우승을 확정지었다. 5타를 줄여 2위를 차지한 고이도스도 최경주 못지 않은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이 대회를 앞두고 상금랭킹 160위에 그쳐 캘리포니아

스쿨을 다시 치러야 하는 위기에 몰렸던 고이도스는 46만달러의 상금을 받아 상금순위 97위로 뛰어 올라 내년 투어 카드를 손에 넣었다.

최종 라운드에서 1타만 더 잃었으면 투어챔피언십 출전권을 놓칠 뻔 했던 엘스 역시 공동 6위(7언더타 277타)에 올라 시즌 상금랭킹 27위(214만4천450달러)를 지켜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스윙·장비 과감한 교체... 우승 원동력

사각형 헤드 드라이버로 파워 스윙

'탱크는 진화한다'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시즌 막판에 화려한 우승 세리머니를 펼치며 세계 정상급 선수로 다시 한번 도약한 원동력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을 꾀한 결과물이다.

최경주의 시즌 막판 분전은 원동력은 시즌 도중에 모험이나 다름없는 스윙교정에 착수하고 과감하게 장비를 바꾸는 '혁신 정신'이라는 분석이다.

최경주는 지난 8월 초부터 스티브 밴이라는 호주 출신 레슨 코치를 영입해 스윙을 뜯어 고치는 작업에 나섰다.

당시 최경주는 "좀 더 오래 PGA 투어에서 버티려면 지금 스윙으로는 안된다"면서 "점점 더 파워풀하는 스윙을 구사하는 선수가 많아지고 코스도 파워 히터에게 유리하게 변하고 있다"고 결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스윙 아크를 키우고 힘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스윙 교정에 들어간 최경주는 또 "8주가 지나야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다"며 "100% 완성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때가 지나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우승이 바로 스윙 교정에 착수한 지 8주가 지나고 새로운 스윙이 몸에 배어든 시점에서 나와 최경주의 '장담'은 허황한 것이 아님을 입증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최경주의 혁신 정신은 과감한 장비 교체에서도 드러난다.

8주간 스윙 연습·힘 손실 최소화

교정 前보다 50야드정도 더 날려



이번 대회에서 최경주는 드라이버 티샷을 유난히 자주 날렸다. 다른 선수들이 3번 우드로 조심스럽게 티샷을 날

리는 흠에서도 드라이버를 잡아 50야드 이상 티샷을 더 보내는 이점을 누린 것은 3주 전에 바꾼 드라이버가 손에 꼭 맞았던 덕이다.

타이거 우즈를 비롯한 많은 선수에게 잠비를 공급하는 나이키골프가 새로 만든 사각형 헤드의 스모 스퀘어 드라이버는 PGA 투어 선수 가운데 최경주가 맨 먼저 실전에서 사용했다.

'10년 이상 PGA 투어에서 정상급 선수로 살아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던 최경주는 불혹의 나이를 불과 3년 남겼지만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진화하여 통란을 예고하고 있다.

최경주가 스스로 밝힌 내년 목표인 '한국 선수 최초의 메이저대회 우승'도 이런 혁신 정신이 있기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각드라이버 비거리·방향성 탁월

최경주가 사용중인 사각 드라이버는 나이키의 'SQ 스모 스퀘어'다.(사진 원내)

내년 봄 출시 예정인 이 드라이버의 장점은 헤드의 '관성 모멘트'를 사상 최고 수준인 5300으로 끌어올려 비거리와 방향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관성 모멘트가 커지면 빗맞은 샷에도 헤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 최경주 인터뷰

"PGA 4승 아시아에선 내가 처음"

-이번 대회 우승은 어떤 의미가 있나.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PGA 투어 생활이 편하고 안정됐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아시아 선수로는 PGA 투어에서 4승을 거둔 것이 내가 처음이다. 자부심을 느낀다.

-그동안 스윙 교정을 해왔는데 완성이 된건가.

▲100% 완성은 아직 멀었다. 그러나 새로운 스

윙이 몸에 익었고 편하다. 지난해 대회인 후나이클래식을 앞두고 코치 스티브 밴과 1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는데 그게 이번 대회에서 효과를 본 것 같다.

-아주 독특한 모양의 드라이버를 사용했는데.

▲2주일 전인 후나이클래식공식 연습일에 나이키골프의 장비 담당 직원이 가져다 준 신제품이다. 헤드가 사각형인 스모 드라이버인데 쳐보니까 밀

리 똑바로 날아가길래 계속 썼다.

모양이 하도 이상하고 소리가 여짜나 큰 지 다른 선수들이 놀랐다. 아니 엘스는 '참치캔에 사프트를 달아놓은 것 같다'고 계속 놀렸지만 나한테 딱 맞았다. 오늘도 다른 선수들이 3번 우드로 티샷을 하는 어려운 흠에서 드라이버를 집을 수 있었던 것도 워낙 잘 맞아서 그랬다.

-투어챔피언십에서도 선전이 기대된다.

▲이미 세 차례나 경기를 치러본 코스다. 전보다 관한 마음으로 자신있게 코스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홍진주 "일본 포기, 미국 가겠다"

일본여자프로골프 진출을 추진하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오롱-하나은행챔피언십 우승자 홍진주(23·이동수패션)가 일본 무대를 포기하고 LPGA 투어로 가겠다고 30일 밝혔다.

31일부터 열리는 일본여자프로골프 캘리포니아스쿨에 출전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던 홍진주는 가족 회의 끝에 일본 진출 의사를 접기로 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어머니 윤영희(49)씨와 즐겁게 떨어져 살아온 홍진주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 일본여자프로골프에서 뛸 생각이었으나 코오롱-하나은행챔피언십 우승으로 LPGA 투어 전경

기 출전권을 받아 계획을 바꾸게 됐다.

홍진주는 어머니 윤씨가 미국행을 강력하게 원해 일본 진출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홍진주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코스포 엔터프라이즈의 김성준 이사는 "LPGA 투어 진출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선수에게 어떤 선택이 유리할 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해 국내 잔류 가능성도 시사했다.

"LPGA 투어 진출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고 밝혔듯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LPGA 투어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많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 안시현(22), 이지영(21·하이마트) 등 LPGA 투어 비회원으로 우승했던 2명의 선수는 2년간 전경기 출전권을 받았지만 제도가 바뀌어 홍진주는 1년만 전경기 출전권을 받은 것도 결정을 미룬 원인이 됐다.

홍진주는 다음 달 10일부터 미국 앨라배마의 모빌에서 LPGA 투어 대회 우승자만 초청해 치르는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 출전, 미국 현지 분위기를 살펴본 뒤 내년 시즌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시즌 막판 해냈습니다"

에서 우승을 확정 지은 뒤 모자를 벗어 들고 승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최경주가 30일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베이의 웨스턴 이니스브룩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크라이슬러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 지은 뒤 모자를 벗어 들고 승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